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초기청소년의 또래지향

신효식\*<sup>†</sup> · 이선정 · 박순화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생활과학연구소

### Mothers' Rearing Behavior and Peer Orientation of Early Adolescents

Hyo-Shick Shin\* · Seon-Jeong Lee · Soon-Hwa Park

*Dept. of Economic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among peer orient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mothers' rearing behavior of early adolescent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influencing peer orientation.

The subjects were 399 students-sixth grade and second grade in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Peer orientation of early adolescents showed parti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mothers' rearing behavior.  
Peer advice seek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child's grade, reasoning guidance, affection and active-education of mother.  
And extreme peer orientation was difference in the child's grade, sex, family type, reasoning guidance and over-protection of mother.
2. The order in the effective power of variables on peer orientation of early adolescents was as following.  
Peer advice seeking was influenced by the child's grade and affection that were explained about 21%. And extreme peer orientation was influenced by reasoning guidance, over-protection, the child's sex, and family type that were explained about 17%.  
In conclusion, Mothers' rearing behavior was influenced on peer orientations. Above all children's peer orientations are need for the improvement mothers' behavior reasoning guidance, affection.

Key Words : peer orientation, mothers' rearing behavior, reasoning guidance, affection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P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2524, Fax : 062-530-2529  
E-mail : hsshin@chonnam.ac.kr

## I. 서론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 하에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과 습관,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습득된 행동은 또래관계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자녀의 사회적 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의 요구를 적당히 수용하며, 칭찬과 보상으로 일관성있게 대하는 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달리하는데 영향을 준다(남정태, 1995). 자녀는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를 공유하며 특히 부모관계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만족하는데(Furman, Buhrmester 1985),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 많은 접촉을 하고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여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장기간의 교육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차지한다(양정선, 1997).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자녀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잘 발달시켜 주고, 독립심과 자발성을 갖게 해 주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고, 협동심과 사회성의 결핍을 초래하여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한다(우인철, 1996).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주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의 사회적 환경은 점차 양친과 가정으로부터 떠나 자기를 타인에게 적응시키고 여러 아동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며, 비교적 비사회적 단계에서 사회적 단계로 발달하여 간다.

이는 또래관계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아동의 변화 이유를 Piaget(1965)는 또래집단이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여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래가 어느 시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최경숙(1985)은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또래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신의 위치를 또래에게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된다고 하였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현저한 증가와

급격한 신체, 정신의 변화를 접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전부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염은이, 1997). 또한 그들은 또래가 정한 규칙과 지침을 절대적으로 따라 행동하는데 이는 자신을 인식하는데 있어 또래들이 자신을 비추어 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오경희, 1989)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비중이 커지고 반응에 민감하며 더욱 의존한다.

이러한 또래 관계의 기능은 먼저 정체감 형성을 위한 비교 준거로서의 기능이다. 즉 적절히 또래와 정보를 교류하고 지식을 해석하면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적 성숙을 위해 가정보다 넓고 풍부한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이다. 이 때 부모가 이러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극단적인 또래 지향을 나타낸다. 극단적인 또래지향은 행동, 정서, 가치관 발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또래와 교류하려는 성향 및 의지의 정도인 긍정적인 또래지향(또래조언요구)과 부정적인 또래지향(극심한 또래지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어머니 양육 행동의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와 부모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지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또래지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지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학자에 따라 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차이로 양육행동과 태도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다(박성연, 이숙 1990).

이동희(1995)는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

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숙(1991)은 양육행동을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데 있어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김영숙(1988)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최초의 교사이며, 모형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며, 어머니는 자녀와 접촉이 많고 자녀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므로 어머니의 존재와 태도는 자녀의 발달을 크게 좌우한다(정원식, 1972).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며 자녀에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홍순정(1988)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부모의 평가는 자녀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활동까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고히 해주며, 창의적인 활동으로 탐구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숙자, 1989).

부모의 양육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회적 안정을 주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어 서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행하게 하여 가족이 존속하게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정환경 중 심리적 요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보영(1990)은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실과 상식적인 견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을 충분히 주며, 일관성있는 양육 방법과 태도를 갖고 가정 외의 사회 환경과 접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혜숙(1973)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는 자연적 애정이 원동력이 되어 사회생활에 건전한 적응양식과 행동양식을 학습시켜주며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밑거름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사랑의 정도와 기대, 통제의 정도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양육태도의 차원은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각각 다르게 개념화되어 왔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Symonds(1939)는 수용-거부(acceptance-

rejection),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으로 분류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연구자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과 관찰법을 사용하였다. Hurlock(1978)은 양육태도를 기대포부(parental ambition), 부모의 일반적 태도(parental attitude), 익애적 태도(over protection), 거부적 태도(rejection), 수용적 태도(acceptance), 지배적 태도(dominating) 및 허용적 태도(submissiveness)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오기선(1965)은 거부(소극적-적극적), 지배(엄격-기대), 보호(간섭-불일치)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상로(1977)는 기대적 차원(과기대-무시), 보호적 차원(과보호-방임), 정서적 차원(온정-냉대), 그리고 지시적 차원으로 나누었고, 지시적 차원은 다시 통제적 지시(통제적 수용-통제적 거부), 정서적 지시(정서적 수용-정서적 거부), 권위적 지시(권위적 수용-권위적 거부)의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를 제작 발표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의 개념으로 구성하였고 최경숙(198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 냉정-거부, 자율-허용, 통제-구속의 4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박성연과 이숙(1990)의 연구에서는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요인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박성연과 이숙(1990)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 및 개념에 근거하여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적극적 참여 등을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에 사용하였다.

## 2. 또래관계

Hartup(1983)은 또래란 비슷한 연령의 한 아동과 다른 아동의 관계를 이르는 말로 또래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것이며, 같은 연령의 상호작용은 더 자유롭고 동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래관계는 친구를 오래두고 가장 가깝게 사귀면서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착하는 관계로 이러한 관계는 가족에게 한정되었던 인간관계가 생활공간의 확대에 의해 또래에게로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박희숙,

1985).

친구관계는 세 가지 요소인 서로 좋아함, 서로 즐거움, 능숙한 상호작용을 지닌 정의적인 결속이라고 하거나, 애정·관심·흥미 및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2원적이며 독특한 애착관계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Hartup, 1983).

우정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Ginsberg(1986)는 동반자, 자극, 물리적 지지, 자아지지, 사회적 비교, 친밀감 등 6가지 기능으로 요약하고 있다.

친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친구로부터의 수용여부는 미래의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 인지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Cowen, 1973; Furman, 1987), 문제행동이나 정서장애 등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관계는 초기 청소년과 성인에게 모두 지지적 기능을 하게 되며(백화정, 1989) 학교나 학교 밖에서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 인지,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동의 강화자로서 또래에게 주의와 관심, 인정을 하여 상호작용으로 또래를 좋아한다는 표시로 말이나 신체적 접촉을 한다. 그들은 또래를 모델로서 행동을 관찰하면서 따르고 모방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또래를 준거집단으로 여겨 자신의 행동, 능력, 외모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또래는 청소년의 모델이며 강화와 벌의 대리인이고 내적 자기규제시 비교 기준을 제공하여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행동의 단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Park, 1986).

Piaget(1965)는 아동이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래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탐색하게 하고, 그 견해를 직접 다루어보게 하며, 해결방법을 찾게 해 주고 허용하며 초기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을 돕는다. 친구집단은 가정에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며, 가정에서 맛볼 수 없는 평등한 상호관계를 경험시키고 가정에서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이 보다 복잡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이혜원, 1989).

박영혜(1986)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또래집단에서 인기있는 청소년은 사교적, 관용적, 이타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 소외된 청소년은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으며 불완전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래집단은 아동이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재연, 1988).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부터 친구를 만들고 유지, 수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Hatch, 1987)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습득된 모델링, 강화, 지도 과정을 또래관계에 나타낸다(양정선, 1997).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학령기 이후 관계가 초기 청소년기에는 급속히 증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최경숙, 1985; Furman, 1987).

또래관계는 학년, 아동의 성별, 교육수준, 모의 취업 유무, 부모의 양육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박희숙(1985)은 애정, 원조에 대한 친구관계의 기대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박신연(1989)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친구관계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6학년의 경우는 어느 학년 보다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출생순위, 형제수에 의해서도 친구관계가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Brembeck(1971)은 아동의 성, 연령, 사교성에 의해 친구관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친구관계는 생활 연령이 같다는 것, 그리고 동성이었다는 것을 결정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혜원(1989)은 성별에 따라 친구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Steinberg(1986)는 남아가 반사회적인 또래압력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양성은(1994)도 남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accoby와 Jacklin(1980)은 아동의 또래 공격행동 연구에서 남아가 신체적으로 더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더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3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상황에서 절친한 친구와 다양한 행동에 있어 가담 여부를 살펴본 Bernt(1979)의 연구결과에서 또래의 동조성은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까지 증가하였고 친구관계 지지도를 살펴본 백화정(198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보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에서 보다 뚜렷

한 친구-지인 간의 구분이 나타났다. 즉 학령기에 이르러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질적 변화가 계속되는데 초기 청소년인 6학년에게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학령기에 타인의 동기와 의도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피드백 사용이 향상되어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는 더욱 증가한다(Hartup 등 1981).

김인순(1991)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유의한 관계가 없으나 세부적으로는 자율성이 커질수록 아동의 교사관계와 언어표현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어머니의 학력, 연령, 소득수준 등은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자녀수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실(1987)과 김정아(199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이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해영(1986)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엄격, 모순적인 경향을 띠수록, 초기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고 다른 친구와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의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어머니가 사교적이며 개방적인 경우에 자녀는 성격이 원만하며 적응적이고, 친구 사이에 인기도가 높은 반면에 어머니가 권위적인 자녀는 다른 아동과 잘 싸우고 인기도 없으며, 남에 대한 사려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진석, 1982). 심숙희(1987)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의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 수용, 독립성 권장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박정선(1987)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 성숙도 및 친구 인기도와 관계 연구에서 양육태도가 거부적, 보호적, 복종적, 모순 일지적이 아닐수록 사회적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Perry와 Bussey(1984)는 문헌 고찰을 통한 연구에서 부모가 아동의 성숙되고 독립적인 행동을 격려하며 독재적인 훈육보다는 따뜻하며 애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자녀는 자기신뢰감이 있고 자기 통제적이며 탐색적이고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또래관계에 중요한 행동변화로 나타난다. 특히 초기 청

소년기의 또래관계 증가와 부모와의 친밀감의 감소관계는 또래의 영향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래관계가 감소하는 일시적 동요현상이 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결국 어머니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박성연, 이숙(1990)이 개발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중심으로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적극적인 참여 등의 5개 하위영역에 총 40문항을 Likert type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6)

##### 2) 또래지향

또래지향의 척도는 Fuligni와 Eccles(1990)가 제작하고 박성연(1994)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또래의 조언요구 여부를 묻는 3문항과 극심한 또래지향을 묻는 4문항으로 총 7문항을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57)

####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각 1 개교씩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그 중 39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이 50.1%, 중학교 2학년이 49.9%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자가 50.1%, 여자가 49.9%이며, 형제수는 2명이 60.7%로 가장 많았다.

모의 취업유무에서는 취업한 경우가 51.6%이고,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모가 52.1%, 부가 43.3%를 차

지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모의 연령은 35~40세가 51.5%, 부의 연령은 41~45세가 62%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부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23.5%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399)

변 인	집 단	N (빈도)	%(백분율)
학년	초등학교 6학년	200	50.1
	중학교 2학년	199	49.9
성별	남	200	50.1
	여	199	49.9
형제 수	1	12	3.0
	2	241	60.7
	3	107	27.0
	4	37	9.3
모의 취업유무	취업	205	51.6
	비취업	192	48.4
모의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9	2.3
	중학교졸업	62	15.6
	고등학교졸업	207	52.1
	대학교졸업	98	24.7
	대학원 이상	21	5.3
부의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11	2.8
	중학교졸업	29	7.3
	고등학교졸업	172	43.3
	대학교졸업	127	32.1
	대학원 이상	57	14.4
모의 연령	35세 미만	15	3.8
	35~40	205	51.5
	41~45	154	38.7
	46세 이상	24	6.0
부의 연령	35세 미만	6	1.5
	35~40	68	17.1
	41~45	246	62.0
	46세 이상	77	19.4
가족 형태	핵가족	368	92.2
	확대가족	31	7.8
부의 직업종류	전문직	43	10.9
	관리직	65	16.5
	전문기술직	69	17.5
	사무직	84	21.3
	생산직	23	5.8
	판매서비스직 무직	100	25.3
		11	2.8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초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변인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량분산분석 및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지향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지향의 차이는 일반적 성격에 제시된 10개의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만을 제시하였다(표 2).

〈표 2〉 사회 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또래지향 (N=399)

사회인구학적 변인		또래 지향					
		또래의 조언요구			극심한 또래지향		
변인	구 분	N	M	D	N	M	D
학년	초등학교 6학년	190	7.84	B	189	7.89	B
	중학교 2학년	198	9.83	A	198	8.51	A
F		34.26**			5.20*		
성별	남	192	8.78		191	8.65	A
	여	196	8.93		196	7.78	B
F		0.00			7.87**		
가족 형태	핵가족	359	8.80		358	8.29	A
		29	9.55		29	7.17	B
	확대가족						
F		0.38			5.16*		

\* p<. 05      \*\* p<. 01

또래의 조언요구에서는 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학년이 높은 집단(중학교 2학년)이 높은 또래 조언요구를 나타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또래 관계에 의미를 높게 부여한다는 박신연(1989)의 연구와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보다 또래에게 더 많은 조언을 요구한다는 박성연(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학년이 높은 집단(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핵가족 형태의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또래관계가 깊어진다 고 밝힌 한국청소년상담원(1999), 백화정(1988), 박성연

(1994)의 연구결과와 초기청소년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높은 또래 동조경향을 나타낸다는 오경희(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에 속한 초기 청소년의 극심한 또래지향이 높은 것은 확대가족이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김영숙(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대가족은 가족원이 많아 대화의 기회나 참여가 빈번하게 주어지지만 핵가족의 경우 초기 청소년의 대화대상이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충족하고자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래와의 관계가 결속되어 극심한 또래지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또래지향

초기 청소년의 또래지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면 또래의 조연요구는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 참여에서, 극심한 또래지향은 합리적 지도, 과보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합리적 지도, 애정적 양육 행동, 적극적 참여가 적다고 지각한 집단의 또래 조연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박성연(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를 적게 하고 과보호를 많이 한다고 지각한 집단의 극심한 또래지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합리적 태도가 적은 경우 부정적인 또래관계인 극심한 또래지향을 나타낸다는 박성연(1994)의 연구와 일치하며 과보호적 행동이 사회적 관계, 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남정태(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또래지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 선행되어진 분석에서 또래지향(또래의 조연요구, 극심한 또래지향)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청소년의 또래조연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표 4), 학년( $\beta=.28$ ) 애정적 양육행동( $\beta=-.19$ )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또래 조연요구를 21%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또래조연요구가 높은

〈표 3〉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

(N=399)

독립변인	종속변인	또래의 조연요구				극심한 또래지향			
		N	M	F	D	N	M	F	D
합리적 지도	상	69	7.72	14.6***	C	69	6.97	16.41***	C
	중	262	8.72		B	261	8.26		B
	하	68	10.28		A	68	9.51		A
애 정	상	69	7.54	9.47*	C	69	7.49	1.77	
	중	257	8.67		B	256	8.14		
	하	73	10.53		A	73	9.37		
권위주의적 통제	상	54	9.33	0.58		54	8.56	0.37	
	중	275	8.72			274	8.23		
	하	70	8.76			70	8.10		
과보호	상	53	8.81	0.40		53	8.85	4.59*	A
	중	257	8.86			256	8.29		AB
	하	89	8.66			89	7.79		B
적극적 참여	상	67	7.70	6.40**	C	67	7.21	2.00	
	중	261	8.57		B	260	8.25		
	하	71	10.73		A	71	9.25		

상 $\geq$ M+SD, M-SD $\leq$ 중 $<$ M+SD, 하 $<$ M-SD

\* p $<$ .05 \*\* p $<$ .01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기청소년의 극심한 또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표 5), 합리적 지도( $\beta=-.23$ ), 과보호( $\beta=.16$ ), 성별( $\beta=-.15$ ), 가족형태( $\beta=-.11$ )의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극심한 또래지향을 1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합리적 지도를 적게 할수록, 과보호할수록, 여아보다 남아가, 핵가족에서 극심한 또래지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초기청소년의 또래지향에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4〉 또래조연요구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회귀분석

변인	b	$\beta$
학년	1.69	.28***
애정	-.11	-.19**
적극적 참여	-.07	-.14
권위주의적 통제	.05	.08
합리적 지도	-.00	-.00
R <sup>2</sup>	0.21	
F	16.02***	
D W	1.94	

\*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0, 중학교 2학년: 1로 가변인화 하였다. \*\*  $p < .01$  \*\*\*  $p < .001$

〈표 5〉 극심한 또래지향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beta$
성별	-.81	-.15***
합리적 지도	-.13	-.23**
과보호	.89	.16**
가족형태	1.13	-.11*
애정	-.06	-.11
학년	.39	.07
권위주의적 통제	-.01	-.02
R <sup>2</sup>	.17***	
F	9.21	
DW	2.12	

\* 성별은 남자: 0, 여자: 1로, 가족 형태는 핵가족 :0, 확대가족: 1로 가변인화 함. \*  $p < .05$ , \*\*  $p < .01$ , \*\*\*  $p < .001$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또래지향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 초기 청소년의 또래지향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지향의 차이를 보면, 또래의 조연요구는 초등학교 6학년보다는 중학교 2학년인 경우가 높은 또래 조연요구를 나타냈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학년이 높은 집단(중학교 2학년), 남학생 집단, 핵가족 집단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또래지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또래의 조연요구에서는 합리적 지도와 애정,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행동에서 또래의 조연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합리적이고 애정적이며 적극적인 지도를 하면 또래의 조연요구는 감소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합리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보호를 할 때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상의할 상대로 친구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오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에서 극심한 또래지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래지향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또래의 조연요구는 학년과 애정적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이들 변인은 또래지향을 21%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생보다 또래를 지향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고, 어머니가 자녀를 칭찬하고 존중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정한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래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심한 또래지향은 성별, 합리적 지도, 과보호, 가족형태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이들 변인들은 극심한 또래지향을 17%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핵가족에서 자란 남자들은 부모가 적절한 행동지도를 하지 않거나 자녀의 일을 항상 도와주고 걱정하며 관여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벗어나 지나치게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관계나 학업보다도 친구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지향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이 올바른 또래지향을 지닐 수 있도록 어머니가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의 입장에서 또래관계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칭찬을 많이 해 주며 학업 및 여가생활, 친구관계 등에 대한 대화와 조언을 해주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합리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친 과보호를 할 때 극심한 또래지향이 초래되므로 자녀의 모든 생활에 간섭하고 관여하여 친구관계 형성을 억제하는 과보호를 자제하며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고민을 함께 상의하는 등의 지도를 통하여 독립심과 판단력을 길러줄 때 올바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특히 핵가족에서 사는 남학생의 경우 극심한 또래지향이 나타나므로 또래에게 지나친 관심을 집중하지 않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가정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이외의 친척모임이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래지향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비교적 낮았다는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척도개발의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1. 김보영(1990). 아동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 김숙자(1989). 부모 참여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3.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남정태(1995). 국민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151-165.
7.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

- 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8. 박성연(199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와 또래지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박신연(1989).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과 집단내 인기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박영혜(1986). 교우관계에 있어서 피 선택, 피 배척아의 도덕적 판단 수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박희숙(1985). 6, 7세 아동의 친구관계개념 발달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백화정(1988). 친구지각에 관한 일 연구 -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심숙희(198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와와의 관계. 계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양정선(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양성은(1994).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 오경희(1989).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 안진석(1982). 취학전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염은이(1997). 왕따 리포트: 우리 교육.
19.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20. 우인철(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1. 이동희(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이 숙(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23. 이재연(1988). 아동발달. 서울, 문음사.

24. 이해원(1989).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 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이해영(1986).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정원식(1971).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27. 조혜숙(1973). *정신위생*. 서울, 재등문화사.
28. 주정일(1980). *자녀교육 에세이*. 교육신서. 서울, 배영사.
29. 청소년 상담원(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 한국 청소년 상담원*.
30. 최경숙(1985). *아동심리학*. 서울, 민음사.
31. Bernt, T.J.(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 and par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32. Brembeck, C.S.(1971). *Social foundation of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33. Cowen, E.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D., Trost, M.A.(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1: 438-446.
34. Fuligni, A.J., Eccles, J.S.(1990). Early adolescent peer orient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35. Furman, W.,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36. Furman, W.(1987). Acquaintanceship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63-570.
37. Hatch, J.A.(1987). Peer interaction &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Child study Journal*, 17(3).
38. Hartup, W.W(1983). Peer relationships. In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 N. Y.: John wiley & Sons.
39. Hurlock, E.B.(1978). *Child development* 6th ed. N. Y.: McGraw-Hill Book Co.
40. Maccoby, E.E., Jackline, C.N.(1980).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41. Park, R.D.(1986).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 McGraw-Hill.
42. Perry, D.G.,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Mall, 310-317.
43. Piaget, T.(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 Y.: Free Press.
44. Steinberg, L.(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33-439.